

## 껍데기와 알맹이

### Shell and Content

권도웅 / 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won Do-Ung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면 또 한해가 저무는 것을 느낀다. 나이를 먹는 것을 느끼는 것도 떡국을 먹는 설날이 아니라 선선해지는 가을저녁이라고 말씀하시던 어른들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 되면 사람이나 식물이나 한 해의 마무리를 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 같다. 누렇게 물든 논의 벼와 과수원의 과일들은 이미 결실(結實)을 지나 이미 수확되었거나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여름, 태풍 루사로 인해 침수되었던 논에도 예외 없이 누런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으나 수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농부들의 이야기이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나 알곡(穀)이 적어 수확은 예년의 반도 안 된다니 그만큼 시름이 깊어지게 마련이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권(大權)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친(親)×니 반(反)×니 하며 분당위기를 맞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신당을 만든다고 서로들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다. 알맹이는 그×이 그×들인데 껍데기인 모양만 다시 만들면 무슨 수가 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보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깊어만 간다.

열길 물 속은 알 수 있어도 한 치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는 말과 같이 사람의 속마음을 확인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보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 속은 썩어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은 세상이다. 사기꾼일수록 겉은 멀쩡한 정도를 넘어서 훌륭해(?) 보이나 그 속은 반대이다. 신입사원을 채용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갖고있는 생각이 얼마나 건전하고 필요한 지식을 갖고있나 하는 점이다. 시험과 면접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응시자들의 알맹이를 확인하려 하지만 꼭 성공할 수만은 없는 일이며, 관상쟁이를 동원해도 그것은 보여주는 겉을 판단할 뿐이며, 속을 알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사람은 체면이라는 것으로 포장되면 더욱 그 속을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곡식과 과일, 정치집단을 비롯한 조직, 사람은 껍데기와 알맹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껍데기는 멀쩡한데 알맹이가 시원치 않으면 쓸모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 이치이다. 한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신호인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들녘의 곡식과 미물(微物)들도 그런데 사람이 알맹이인 건축계도 결실의 채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IMF금융체제를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건축계에 불어닥친 한파는 아직도 여전하다. 뗏다방과 복부인들이 설쳐대고, 아파트 분양가는 땅 값에 아파트 건설비를 아무리 후하게 계산해도 이해 할 수 없는 높은 분양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막상 그 일의 중심에 서야할 건축사들의 대부분은 직원을 급여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다. 통계상으로 설계사무소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껍데기를 채우고 있는 알맹이들마저 설계 업무가 3D업종이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전업을 일삼아 능력 있고 젊은 알맹이들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건축사 업무의 범위와 대가기준이 발효되었어도 땅바닥에 떨어진 건축사 용역대가는 올라갈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건축사들은 속이 뒤집히다 못해 아예 속을 비워야 할 판이다.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건축계를 대표하는 3개의 단체에 모두 가입하여 어정쩡하게 보냈는데 또 하나의 단체가 탄생된다니 한 몸을 4개의 단체에 나누어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건축단체의 국제적 대표성 문제로 한동안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더 복잡한 문제로 발전하는 혼돈의 세상이다. 알맹이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껍데기인 조직은 왜 이렇게 늘어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TV에 출연하는 연예인 중 일부는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너도나도 예쁘게 보이려고 특정 연예인을 닮게 성형 수술을 하다보니 개성 있는 얼굴은 사라지고 그 얼굴이 그 얼굴로 변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디서 본 듯한 건물들이 점차 도시를 메우고 있는 현실도 성형수술로 인한 헛갈림과 다를 바 없다. 고층건물의 최 상부에는 날아갈 듯한 캐노피(canopy) 없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유행의 물결이 가로를 메우고 있다. 신축건물이든 리노베이션(Renovation) 한 건물이든 껍데기 모양내기에는 다를 바가 없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이름은 건물 내용과 무관하게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이름을 붙여야 분양이 잘되는(?), 포장과 상표가 중시되는 세상이다. 개성과 알맹이보다는 껍데기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 결과들이다.

건축사들의 작업이 '문화유산', '삶의 터전', '삶을 담은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구호보다는 알맹이를 충실하게 하나하나 가꾸어 가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건축 지망생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일이 건축사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알맹이가 부실한 건축사사무소와 건축 단체가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어떻게 짊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껍데기보다는 알맹이를 충실하게 만드는 일이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다. 알맹이들만 충실하다면 조직이나 단체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마련이다. 건축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껍데기의 문제가 아니라 알맹이의 문제이며, 알맹이를 견실(堅實)하게 만드는 일이 단시간에 이룰 수 없는 문제라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 같다.

건축계는 금년에도 알맹이가 충실한 농사(?)라기보다는 껍데기는 평년작으로 보이거나 쪽정이만 수확하는 흉년 농사가 될 것 같아 씁쓸하다. ㉮